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의 진행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당 제8차대회를 향한 전진도상에 걸썩이는 도전과 난관을 격파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총성의 80일전투가 파급히 전개되고있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1월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과 도당위원장들,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총장, 국가비상방역 부문 성원들이 화상회의체제로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보강할데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회의에서 최근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파상황의 심각성과 국가방역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평가하시고 80일전투의

기본전선인 비상방역전선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기 위한 당적, 군사적, 경제적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결머진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고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조절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정된 의정들을 깊이 연구토의하고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면서 해당한 결정들을 전원 일치로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선을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교육기관들과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있는 비사회주의적행위들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통보되고 이를 결정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행위들을 뿌리뽑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특히 법기관들에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회정치경제도덕생활전반에서 사회주의적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가

### 조국소식

#### 짧은 기간에 수천㎡의 돌가공품을

— 룡강화강석광산에서 —

룡강화강석광산의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에서 혁신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있다. 지난해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이들은 올해에 들어와 10월까지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0일전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광산에서는 매일 평균 150%이상의 생산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원석생산 부문에서는 최고 200%수준을 돌파하였다. 광산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돌가공품생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전의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세차게 들이쳤다. 이들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갔다. 광산의 일군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방범문있게 짜고들고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한편 부속되는 자재, 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위훈을 창조할 총성의 마음 안고 뚜렷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원석생산부문의 로동자들이 작업효율을 보다 끌어올리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

혜와 열정을 합쳐나갔다. 중질작업반의 로동자들도 파급한 돌격전을 벌리었다. 80일전투가 시작된 후 짧은 기간에 수천㎡의 돌가공품을 중요대상건설장에 보내준 이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다. 공무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강하는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설비, 부속품제작에 분투하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계속 혁신하고있다.

본사기자



건설현장에서 덕담년 발전소로

### 공화국의 힘찬 전진의 보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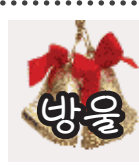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수천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건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이어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들과 삼지연시에서 련이어 펼쳐지고있는 새집들이경사, 버, 강병이가들이 전부 계속되고 날아갈 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한 가을갈이, 자급비료생산 적극 추진.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더치는 격으로 큰물과 태풍피해까지 련이어 들이닥쳤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이 모든 장애와 난관을 파급한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며 련일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지고있다. 돌이켜보면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련속공격, 계속혁신하여 더 큰 승리를 안아오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전진방식으로 되고있다. 가혹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속에서도 진후복구건설의 마시소리를 높이 울리고 천리마대교조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위업을 단 14년만에 완수한 공화국이다. 공화국력사에서 처음으로 70일전투가 진행된 1974년은

또 어떠했던가. 적대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었던 그때 공화국은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70일전투를 벌림으로써 6개년계획을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 점령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쇠는 불속에서 더욱 강해진다 시련속에서 더 강해지는것이 공화국이다.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며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소동에 미쳐날뛰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공화국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공화국의 투쟁정신, 투쟁본래는 새로

운 주체100년에도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75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있다. 당에서 대교조를 호소하면 천리마를 타고 호응했고 대건설을 작전하면 속도전으로 화답했으며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없이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 위대한 인민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우리 당은 언제나 든든하였고 어떤 곡경속에서도 이 땅에 기적의 년륜을 새겨올 수 있었다고 하시던 그날의 말씀을.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심어주신 백두의 공격정신, 자력갱생의 힘은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기적과 전변만을 안아오는 신비한 정신이고 힘

이었다. 꿋꿋한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역경을 맞받아 뚫고 나아가기에 공화국은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짧은 기간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시령스키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려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 자연재해를 가시고 황홀한 새 집, 새 마을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계속 창조하고있다. 백두의 기상을 닮은 조선의 굴함없고 힘찬 전진의 보폭을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2020년의 날과 달을 승리와 기적으로 이어온 공화국은 지금의 80일전투에서도 영예로운 승자가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조선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식물을 꼽으라면 아마 김치를 첫손가락에 꼽을것이다. 그만큼 김치는 조선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민중음식이다.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가득 놓여있어도 김치가 빠지면 섭섭해하고 김치부터 찾는 조선사람들이다. 겨울을 앞두고 집집마다에서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담고

느라 바쁜 모습이 하나의 풍경으로 되어왔다. 지금도 계순으로 맛있는 겨울김치를 장만하는 집들이 많다. 김치공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이 공

장들에서 생산하여 삼겹살과 식당, 매대들에 내놓는 김치는 맛도 특이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통배추김치가 있는가 하면 백

김치, 석박김치도 있고 시원한 동치미, 갓김치도 있다. ◆ 김치공장들에서 만드는 김치는 한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주민들의 식생활을 적극도 도모해주고있다. 그러므로부터 가정의 식탁위에 눈맛, 입맛나는 공장김치가 놓이는것이 흔한 현상으로 되고있다. 품이 많이 드는 김장대신 손쉽게 자가 원하는 김치를 구입하여 식생활에 리용하고있으니 누구나 김치공장의 덕을 단단히 보고있는셈이다.

#### 《김치공장의 덕》



# 백두신아래에 펼쳐진 산간문화도시

태고연한 수림속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에 또다시 경사가 났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삼지연시를 온 나라 인민이 부러워하는 문명의 도시로 꾸려주실려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백두산밀영동, 신무성동, 리명수동, 포태동, 5호물동, 중흥리, 흥계수리, 소백산리, 백삼

리, 보서리, 동신리를 비롯한 10여개의 동, 리에 수천세대에 달하는 새 문화주택들이 꾸려졌다. 산간지대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다층, 소층, 단층살림집들로 꾸려진 아기자기한 마을 풍경들은 자연의 경관과 어울려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온다. 백두대지에 훌륭히 일떠선 선경마을들

은 이제 이 땅의 방방곡곡에 더 아름답게 펼쳐질 사회주의문명을 그려보게 해주고있다. 오늘도 좋지만 래일에는 더 살기 좋은 인민의 무궁도원을 그려보게 해주는듯 저 멀리 백두산자락과 잇닿은 나라의 무수한 산발들이 바라보인다.

본사기자



천지개벽된 삼지연시 (2019년)



삼지연시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 (2020년)

## 수도의 따뜻한 정으로

《지금 온 인민반이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습니다. 덩실한 새 집을 훌륭하게 지어준것도 고마운데 친혈육의 정이 깃든 지원물까지 가지고 찾아와 우리들을 극진히 위로해주던 그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수도의 정든 집을 떠나 낮

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느라 그들이 불편한것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릴 걱정해주었으니... 정말 그동안 그들에게 정이 폭 들었습시다.》

수로정리 등 집주변정리도 알뜰하게 해주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던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모습에서 매일 감동을 받아안았습니다. 그들은 떠나갔지만 수도의 따뜻한 정,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이것은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피해복구전투를 하던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터치고있는 진정의 소리이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다. 온 나라 인민이 신문과 TV로 보도되는 수도당원사단의 자랑찬 위훈과 아름다운 소행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마다 감탄을 터치곤 하였다.

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를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바로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이다. 하기에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곳

적인 복구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 수도시민들의 따뜻한 정이 하나라도 더 가닿도록 성심성의를 다한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최정예 수도당원사단, 파견 어떻게 조직된 사단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수도당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 사단이다. 오늘날 인민들은 달리는 련차에서 수도당원들의 정겨운 모습들을 그려보시며 그들에게 한자두자 자신의 진정



수도살림집에서 인사하는 건설민들

## 협동벌이 들끓는다

공화국에서 농업전선은 8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의 하나로 되고있다.

올해에 땀흘려 지은 곡식을 한이삭이라도 허실되지 않게 한해농사를 깨끗이 마무리짓는것과 함께 다음해에 더 큰 알곡수확을 안아오기 위해 그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나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협동벌이 그 어디에서나 끓어번지고있다.

개선할 목표밑에 정주프라도르부속품공장과 시, 군농기계작업소들에서 논밭갈이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제령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논밭갈이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과감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군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논밭갈이를 진행하였다. 은룡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경험에 기초하여 논밭갈이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날 계획을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평안북도에서도 80일전투기간에 논밭갈이와 함께 지름을 많이 내어 지력을

본사기자 강류성

##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80일전투에 펼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순간의 답보와 침체도 모르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이들앞에서는 적대세력들의 장기적인 제압살책동도, 련이 들이닥친 파괴적인 자연재해도 무용지물이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오�히려 화를 북으로 전환시키며 자력번영의 진일보를 위한 소중한 성과물들을 하나하나 이룩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세상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있다.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 지칠줄 모르는 무한대한 힘을 안겨주는것인가.

명언에는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며 위대한 승리만을 이룩해가는 공화국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다.

사상의 위력은 공화국의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백승을 떨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련속 기적을 창조하는것이 아니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려명거리와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오늘 피해복구현장에서 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것은 천만군민을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로 역세계키우신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대를 개척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다름아닌 사상의 힘, 정신력이라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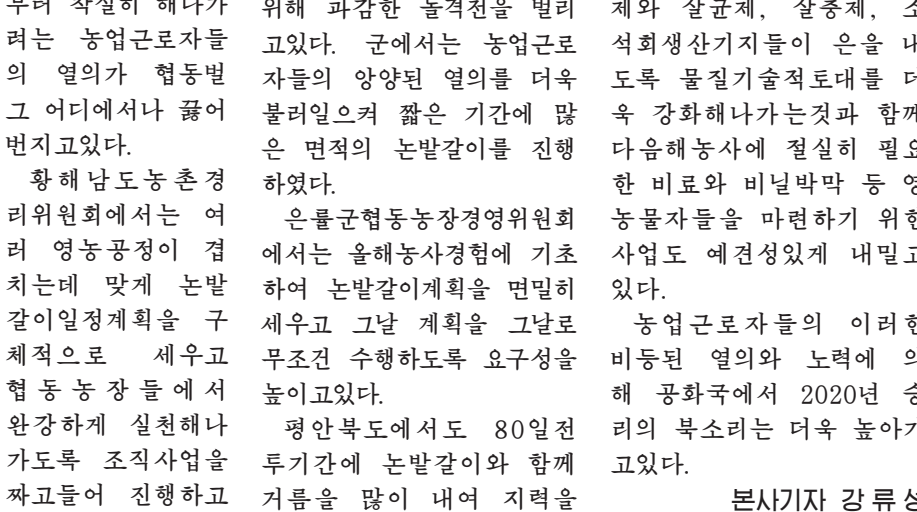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면 서도 건설장전역이 격동적인 화산선전, 화산선동으로 들썩이고 군인들의 투쟁기세가

높다고, 현장정치사업을 바력있게 잘하고있다고 민족을 포시하시였다. 지금 피해복구전구는 물론 80일전투를 벌리고있는 이 나라 방방곡곡의 전투장마다에서 선전선동력량과 수당원들이 총동원되어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는 화산선동의 북소리가 팡팡 울려지고있다.

치렬한 철야전투로 뿔어진 피해복구전구로부러 지는 피로가 어디를 가보아도 80일전투에서 기어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겠다는 공화국인민들의 신심넘친 모습들을 볼수 있다.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을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사상적으로 무장되고 각성된 인민대중의 정신력 앞에서는 자연의 광란도 맥을 추지 못하며 그 무궁무진한 힘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낳는 법이다.

사상정신력만 강하면 이 세상에 두려운것이 없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대성산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천년강국의 산성



공이었던 안학궁을 보위하는 방위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성산성이 울지봉(높이 270m)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소문봉, 울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의 봉우리들을 연결하여 총길이 9 284m에 이르는 매우 큰 성이었다고 설명해주었다. 현재 남아있는 이 성벽은 고구려 사람들의 숨겨진 대대로 다시 쌓은 것이란 것이 그의 이야기였다.

맑은 물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기슭에 웅장 화려하게 일떠선 평양의 동북면에 높이 솟은 대성산! 유구한 세월속에 한때는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유적들을 간직해온 파묻혀 빛을 잃었지만 오늘은 민족의 기상이 넘쳐나는 명승, 유적으로 자랑떨치고있는 대성산의 역사유적을 찾아 우리는 기행의 길에 올랐다.

연구사와 동행하였다. 고구려의 옛 성터인 대성산에는 역사유적이 참으로 많다고 그는 말하였다. 역사주의적관점에서 원상대로 복원된 대성산성 남문과 광범사 그리고 여러 정각들과 옛문들... 그러나 큰 성이라는 뜻에서 대성이라 부르는 이름 그 자체에도 있듯이 대성산의 역사유적을 이야기하자면 대성산성을 첫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다.

원을 거느리고 높이 솟은 소문봉을 따라 한참 올라가니 라니 남쪽경사면에 치우쳐있는 옛 산성이 우리의 눈에 안겨왔다. 천년강국으로 이름났던 고구려의 용맹과 슬기가 비껴서인지 볼수록 그 기개 장엄한 이 산성이 바로 유명한 대성산성이다. 깊은 생각속에 성을 바라보는데 리일심연구사가 대성산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왕

다시 쌓은지는 얼마 되지 않아 성돌에 아직 푸

른 이기가 끼지 않고 돌버섯은 돌지 않았어도 옛 고구려사람들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듯 한 성벽이었다.

웃돌레를 따라가며 활구멍을 낸 성벽위에 서니 의적을 물리치며 용감히 싸우던 선조들의 용맹스런 모습이 방불히 어려오리 휘-익 불어오는 바람소리도 어쩐지 적진으로 날아가던 그날의 활소리인듯싶었다.

고구려의 역센 기상을 안고 예나 지금이나 굳건히 서있는 대성산성.

오늘도 대성산성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우수한 성곽술을 보여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자연기념물

조선범

조선범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짐승으로서 몸길이는 150~180cm, 꼬리길이는 90~100cm이며 몸질량은 150~200kg이다. 조선범은 낮에는 바위굴이나 부성한 숲속에 숨어있다가 밤, 특히 새벽에 맹활동을 하면서 짐승들을 잡아먹는다. 먹이는 주로 메뚜기, 노루, 사슴, 사향노루, 늑대, 송냥이 등이며 먹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작은 짐승류, 새, 파충류, 물고기, 곤충까지도 잡아먹는다. 조선범은 조선의 북부 높은 산지대의 극히 제한된 구역에서 산다. 이 지대는 북포태산, 남포태산, 판모산, 대로는산 같은 높은 산들이 솟아있는 백두고원의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물황칠나무 등



본사기자

특색있는 미술작품이동전시회

공화국의 각지에서 80일전 두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미술작품이동전시회가 특색있게 진행되고있다.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를 비롯한 미술창작기관 창작자들이 창작한 우수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백두산의 웅건장중한 기상을 펼쳐보인 유화 《혁명기의 성산 백두산》, 조선화

《백두명사령부의 아침》 등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전인민적지향을 반영하였다. 조선화 《사령부를 위하여 7천대 앞으로》, 《사령부의 안영을 지켜》를 비롯한 작품들은 항일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경사 웅위정신과 열렬한 조국애, 백철불굴의 신념으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고

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는 전인민적공격전에 활력을 부여하고있다. 그 어떤 시련의 광풍이 몰아쳐도 백두산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갈은 나라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조선화 《가리라 백두산으로》, 《백두여 너를 닮으리》, 《백두초병》, 관화 《계승자들의 대오》 등에 세차게 맥동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안축과 가요 《관동별곡》

안축(1287-1348년)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명리하고 슬기로우며 부지런히 공부하여 글에 아주 능하였다. 강릉도준부사(도장판)로 있을 때 《관동와주》라는 작품을 엮고 《관동별곡》을 비롯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집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관동별곡》에 이어 《죽계별곡》 등의 후기체가요들을 지어 고려 후반기 민족시가발전에 기여하였다. 문집으로 《근재

집》이 있다. 《관동별곡》 시에서는 시인의 유람로정에 따라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명승들과 아름다운 풍치를 순차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 총석정 금란굴의 기암괴석을 전도암 사선봉의 옛 고적들

야아발 바위돌이의 절승 경계여 위세상이런 경치 또 어디에 있오라 ... 노래의 매 분절들에는 황홀경을 이룬 조국산천에 대한 시인의 긍지높은 찬양과 그를 사랑하는 애국의 심정이 담겨져있다. 작품은 경기체가의 서사화과정과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가지마다

붉은 감알

평양의 통일거리에 자리잡고있는 하나음악정보센터에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구내에 심은 수십그루의 감나무들이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진것이다. 맑고 푸른 하늘과 대조되어 더욱 이채롭게 보이는 감풍경은 이곳 종업원들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구내에 감나무를 심어 가꾸

기 시작한다고 10년이 되었다. 이들은 구내를 목숨이 우거지게 하기 위해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함께 감나무들을 구해다 한그루한그루 정히 심고 가꾸었다. 특히 올해에는 재해성기후의 영향으로 감나무들의 생육에 매우 불리하였지만 모두가 떨쳐나 감나무비배관리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속에

서도 오늘과 같은 이채로운 감풍경을 펼쳐놓을수 있었던 것이다. 이곳 종업원들이 구내에 심은 감나무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부분이 되어 일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튼튼한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하나, 들... 백하나, 백들...》 저마다 겨우내기로 세여가는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 즐거운 미소가 피어오른다.

붉게 익은 감들이 가지마다 주렁진 모양도 보기 좋지만 감나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일터의 낭만과 정서는 또 얼마나 흥겨운 것인가. 자기의 일터를 사랑하고 빛내여가려는 소중한 마음들이 이처럼 가지마다 주렁진 붉은 감들에 어려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인심》이 후하다

어느 한 마을에 사는 지주마누라가 깍쟁이라고 소문이 났다. 하루는 장마당에 나온 지주마누라가 생선을 사지 않고 절인 물고기만 팔라가며 갔다. 지나가던 길손이 왜 절인 물고기만 사는가고 묻자 그는 대답하였다.

《우리 집에 손님 왔어요. 이 고장의 물맛이 좋다고 감탄하기에 그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중에서 절인것을 대접하자구요. 절래야 맛좋은 물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니 쌀도 절약될게 아니예요. 어때요. 내 《인심》이 후하지 않아요?》

에 이른 최무선은 2년동안 방위초소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직을 물리쳤으나 그동안에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고 개경백성들의 생활은 곤궁하기 그지없었다. 최무선의 집도 다들바가 없었으며 더우기 인자하고 리해깊던 부친과 사랑하던 한아들은 리리통에 세상을 떠

다. 모든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그는 다시 관청에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에서 받은 특으로씨는 집 한칸 마련하기 어려웠고 연구를 위한 비용을 짜내리만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최무선은 품전을 아끼며 연구를 계속하였다. 끼니를 번쩍 때도 많았으나 그는 그



났다. 거처할 집도 화약연구에 쓸 방도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갖추어두었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만은 남아있었

던것에는 아무런 화약제조에만 몰두하였다. 이후 몇 도란에 빠진 민정을 수습함으로써 고려왕조의 중앙집권을 강화할 목적

사화

최무선이야기 (5)

두번이나 연구를 중단하게 된 최무선의 마음은 무거웠다. 완전한 화약을 제조하고 화통을 비롯한 각종 화약무기를 만들어낼 희망으로 분망하던 날은 졸지에 먼 옛날처럼 멀어지고 눈앞에는 준엄한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최무선은 화약을 만들어내어 적을 막는데 쓰지 못하고 또 연구를 중단하게 되는 자기의 처지가 화가 났다. (나라가 흥한가? 화약이 중요한가?)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오래 끌 필요가 없었다. 그는 먼저번 왜적의 침입에도 그렇게 하였고 또한 그렇게 한것을 후회한적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최무선은 어린 아들과 함께 연구에 사용하던 기구들과 실험중이던 각종 원료들과 어느 정도 된 갖가지 색의 화약들과 문서며 일기장들을 차근차근 싸고 묶어서 외딴 곳에 깊이 간직하였다. 어떠한 재화가 미치지라도 이

것만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었으며 설혹 자가 비명에 죽는 한이 있어도 적에게 빼앗기지 않고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를 계속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20만의 방어군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용감하게 싸웠다. 안우, 리방실, 최영 등은 서로 긴밀히 련합하여 물샷틈없이 개경을 포위하였다. 그들은 개경의 삼면만을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들은 삼면으로 쳐들어오는 조선군사를 막을 길 없어 열어놓은 한쪽의 출로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놈들을 추격하여 섬멸하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다. 적들은 감쪽같은 방어의 계략속에 들어서 보기 좋게 섬멸되었다. 이리하여 2개월간 적들에 의하여 강점되었던 개경은 해방되었다. 적을 추격하여 멀리 변경

한세기만에 두번째의 참혹한 파괴를 당하였다. 불길과 검은 연기는 거리에 차고 놈들을 저주하는 백성들의 원성은 송악산에 메아리쳤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20만의 방어군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용감하게 싸웠다. 안우, 리방실, 최영 등은 서로 긴밀히 련합하여 물샷틈없이 개경을 포위하였다. 그들은 개경의 삼면만을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들은 삼면으로 쳐들어오는 조선군사를 막을 길 없어 열어놓은 한쪽의 출로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놈들을 추격하여 섬멸하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다. 적들은 감쪽같은 방어의 계략속에 들어서 보기 좋게 섬멸되었다. 이리하여 2개월간 적들에 의하여 강점되었던 개경은 해방되었다. 적을 추격하여 멀리 변경

이때에는 두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려놓고 서서 어깨를 축으로 두발을 시계바늘방향과 그 반대방향으로 한번에 각각 10번씩 휘두르되 3~5회 반복한다. 이때 운동폭이 커야 하며 처음에 천천히 하다가 점차 빨리 해야 한다. - 다리가 붓고 아를 때에는 반듯이 누워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한다. 이때에는 배개를 베지 않고 반듯이 누운 다음 두다리를 들어올려 벽에 기대다. 이때 가능한것 다리와 몸통의 각도를 90°로 유지한다. 이런 자세로 5~10분 유지하면 다리쪽으로 지나치게 쏠린 피를 다른 부위로 돌리고 아픈감을 덜 수 있다. 본사기자

피로를 가시려면

속담과 뜻

◆ 알은 내도 깊게 건너라. 비록 안심되고 믿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돌려서 해야 실패가 없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콩밭에 가 두부 찾는다. 지나치게 몹시 성급하게 행동함을 비적 이르는 말. ◆ 열반 재고 가위질은 한번 하라. 무슨 일이나 라산없이 경솔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모저모로 깊이 생각하고 세심하게 따져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지나치게 몹시 성급하게 행동함을 비적 이르는 말. ◆ 열반 재고 가위질은 한번 하라. 무슨 일이나 라산없이 경솔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모저모로 깊이 생각하고 세심하게 따져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